

이야기 카드 1

축제 부스 회의

학급 축제 부스를 정하는 회의. 방탈출을 하자는 건우와 사진관을 하자는 나연이의 의견이 맞섰다. 건우가 큰 소리로 말했다. “사진관은 너무 뻔하잖아. 그냥 다수결로 끝내.”

A 건우 B 나연

지켜본 사람 회의를 이끈 반장 승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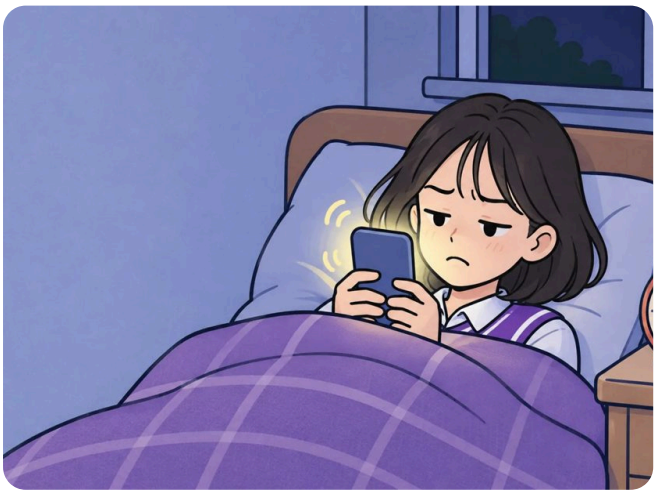
이야기 카드 2

마감 전날 밤의 모둠 과제

모둠 과제 마감이 내일인데, 자료 조사를 맡은 지안이가 아직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. 발표를 맡은 예준이가 모둠 단톡방에 썼다. “너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.”

A 예준 B 지안

지켜본 사람 같은 모둠 하람



이야기 카드 3

밤 11시의 단톡방

반 단톡방에서 밤늦게까지 알림이 울린다. 일찍 자야 하는 보미가 “알림 좀 그만 보내. 생각이 없냐?”라고 쓰자, 신나게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.

A 보미 B 이야기하던 태린

지켜본 사람 단톡방을 만든 반장 승민